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시험

17번 문제의 해설과 출제 오류 없음 증명

- 정답 없음, 출제 오류 주장에 대한 재반박 -

랑샘국어 손태랑

머리말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손태랑입니다. 지난 25년 11월 16일, 해당 문제에 대해 정답이 없다는 의견으로 출제 오류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는 아직 성적이 확정되지 않은 수능 응시생들에게 특히 큰 혼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논란이 생긴 다음 날인 17일에 해설 영상과 오류 주장에 대한 반박을 공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의견에 대해, 이 출제 오류 주장을 제기하신 포스텍 이충형 교수님께서 존중해주시면서, 교육적인 논의를 나눠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한 글로 정리하여 발표하셨고,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을 요청하셨기에 글을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공개한 내용은 최대한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수능 시험의 취지에 맞게 충분히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글은 반박에 대한 재반박 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기존에 공개한 내용과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내용은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출제 오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정확히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이유)

(핵심 1) 출제 오류 주장은 대부분 문제에서 물어 보지 않은 내용에 대한 논증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문제에서 물어 본 내용에 한정해서 논증해야 합니다. 발문, 보기, 선지에 적힌 내용 그대로 물어 본 것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면, 정답은 명백히 3번입니다.

-> 3에서 설명합니다.

(핵심 2)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이하 '칸트 이전')에 대해 잘못 이해한 논증입니다. 특히 '생각하는 나'와 영혼, 그리고 지속의 개념을 칸트 등 다른 철학자, 또는 외부 배경지식을 통해 설명한 논증이기 때문에 출제 오류의 근거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칸트 이전'의 핵심과 3번 선지를 판단하는 방법

먼저 제시문의 1문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알'을 말한다.

- '칸트 이전'은 '영혼'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한다.
- 즉, 영혼이라는 존재만으로 인격이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 이때, 영혼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
- 모든 '영혼'은 '생각하는 나'이다. (제시문에서 명시한 "생각하는 나"인 영혼" 때문에)

* 여기서 교수님께서 반박하신 내용의 핵심이 나옵니다.

<모든 '영혼'은 '생각하는 나'이다.>는 참이지만, <모든 '생각하는 나'는 '영혼'이다.>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서,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합니다. 지문에 등장하는 이 둘의 유일한 연결 고리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생각하는 나"=영혼"이라고 해석하고 따라서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면 영혼도 지속한다고 추론하셨을 텐데, 이는 옳지 않은 해

석과 추론입니다.

"생각하는 나"=영혼"이라는 표현은 지문과 보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생각하는 나'는 '영혼'이다.>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문단, 3문단까지 읽으면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글 전체에서 파악한 맥락을 바탕으로 '칸트 이전'의 견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평가원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그러나'를 통해, 2문단은 '칸트'와 '칸트 이전'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칸트의 입장의 핵심은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입니다.

따라서 '칸트 이전'은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한다>라는 입장임이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자기의식은 ‘나는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식이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한다>를 통해 모든 ‘생각하는 나’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칸트 이전’에 따르면 모든 ‘생각하는 나’는 영혼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의 지속’은 ‘영혼의 지속’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칸트 이전’이 생각하는 나의 지속이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만약 ‘칸트 이전’이 <모든 ‘생각하는 나’는 영혼이 아닐 수도 있다>, 즉 <‘생각하는 나’이지만 영혼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맥락이 깨지고, 잘못 작성한 글이 되어 버립니다. 영혼이 아닌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자기의식을 하는 인격이 있는데도 영혼이 아닌 경우가 있는 생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의식이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할 수 없고, 이는 ‘칸트 이전’과 ‘칸트’의 입장이 차이가 없고 똑같다가 됩니다. 완전히 틀린 독해가 되는 것이죠.

* 실제로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나’가 지속해도 영혼은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반박을 하실 때, 칸트의 견해를 가져 오셨습니다. 이는 칸트의 입장이지, ‘칸트 이전’의 입장이 아닙니다. 칸트의 입장은 당연히 ‘칸트 이전’의 입장과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 대신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라는 표현을 <모든 x에 대해서, x가 ‘생각하는 나’이면 x는 영혼이고, x가 영혼이면, x는 ‘생각하는 나’이다>를 함축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x가 ‘생각하는 나’이면 x는 영혼이고, x가 영혼이면 x는 ‘생각하는 나’이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면 반드시 영혼이 지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매순간 새로운 영혼이 창조되고 소멸되면서도 생각이 이어지면, ‘생각하는 나’는 지속해도 영혼은 지속하지 않습니다. 올해 수능 특강 99쪽 지문에 관련된 견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선행하는 주관에서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하에 사유된다면,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을 마주치는 것으로 의식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칸트의 독창적 견해는 아니고 당시 꽤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논의 중인 연속창조론(매순간 세계가 소멸하고 새롭고 창조된다는 견해)이라는 견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생각하는 나’가 지속해도 영혼은 지속하지 않는 반례는 칸트가 주장한 것입니다. 만약 ‘칸트 이전’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마찬가지로 모순이 발생합니다.

“‘생각하는 나’가 지속해도, 영혼은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혼의 실재함은 보장한다.” 위와 같이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칸트 이전’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 (핵심 1) 17번 문항이 물어 본 내용

17.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의 갑: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평가원의 평가하고자 한 의도]

1.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조건에 대해, ‘칸트 이전’과 갑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2.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
-> 여기서 해당 관형절이 갑의 입장이 맞는지 알고 있는가?

여기까지가 평가원이 평가하고자 한 의도입니다. 이는 그동안 평가원이 출제한 인문 제재의 <보기> 제시형 문제에서 흔히 있었던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증거가 더 중요하기도 하니, 이에 관해서는 기존 유튜브 영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가원의 의도를 차치하고, 논리적으로 필요한 판단]

3.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명제 자체에 ‘칸트 이전’은 동의하겠는가?

여기까지만 이 문제의 선지를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넘어서서 추가로 검증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 정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다음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문제에서 물어 본 내용과 관련이 없는 쟁점]

1) ‘칸트 이전’은 <보기>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이하 프로그램 재현)을 ‘생각하는 나’의 지속으로 보겠는가?

이 판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선지였다면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는 그것을 물어 보지 않았죠.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 재현을 ‘생각하는 나’의 지속으로 보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이처럼 프로그램 재현을 '생각하는 나'의 지속으로 보았는지를 물어 봤을 때 판단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선지에서는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칸트 이전’은 프로그램 재현을 ‘생각하는 나’의 지속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에 동의하지 않을뿐더러, ‘칸트 이전’은 이것 외에도 갑의 입장을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갑은 “살아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칸트 이전’은 갑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반박에 대한 재반박

따라서 ③번 선지는 다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만약 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가 이것이 ‘생각하는 나’가 지속하는 경우라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을 옳지 않겠군.

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칸트 이전 견해를 의식의 프로그램 상황에 적용해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선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증명할 수 있다는 반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제 자체가 틀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칸트 이전’은 ‘생각하는 나’의 지속 = 영혼의 지속 = 인격의 동일성 보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재현이 ‘생각하는 나’의 지속이라고 본다면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한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칸트 이전’은 프로그램 재현을 ‘생각하는 나’의 지속이라고 애초에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프로그램 재현이 ‘생각하는 나’의 지속이라고 본다면”라는 전제를 ‘칸트 이전’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철학적 오류에 대한 판단은 제가 아닌 교수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만 열어 두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철학적 오류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칸트 이전’은 갑의 입장을 옳다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칸트 이전’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나’란 영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재현을 ‘생각하는 나’가 지속된 것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합니다.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 ‘생각하는 나’라는 개념 자체를 ‘칸트 이전’은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는 철학사적으로 칸트 이전, 예컨대 데카르트 등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지문에 제시된 ‘칸트 이전’이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마치며

이 글을 공유한 이후에도 재반박이 이어진다면, 저도 기꺼이 교수님과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서 논의를 이어 주신 이충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분들의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문에도 앞으로 최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학생 분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랑샘국어 손태랑